

조계종 재난구호봉사대 4박5일 봉사활동

50년만의 최악의 홍수 태국, 미소 잃지 않았다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대가 50년만의 최악의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태국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돌아왔다.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스님을 단장으로 한 봉사대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4박5일 동안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은 태국 중북부지역을 돌며 이재민들에게 구호물품을 나눠줬다. 특히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세심하게 살펴 주민들로부터 감사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봉사대가 준비한 물품은 총 3000세트, 약 10kg에 쌀과 라면, 두유 등 음식과 생필품, 구급약 등으로 구성됐다. 세계불교도우의회(WFB) 측과 사전 논의를 거쳐 이재민들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용품 위주로 마련했다. 이를 위해 종단과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은

WFB에 성금 1억원을 전달했다. 봉사대는 태국 한마음선원 신도 및 WFB 봉사자 등 50여 명과 함께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구호를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와트 피룬팅, 와트 사남늑, 와트 파야얏, 와트 라자 등 총 5개 사찰에서 주민들에게 구호품을 나눠줬다. 또 주요방송사인 '채널 3' 에도 500개의 물품을 전달하고 인터뷰를 통해 현지 언론에 활동을 알렸다.

봉사대 단장 혜경스님은 "집을 잃고 막대한 상황에 처해있지만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라며 "태국이 빠른 시일 내 아픔을 털고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9면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봉은사·불교TV·청도 운문사...

태국 자비나눔기금 답지

50년만의 최악의 홍수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교국가 태국을 돕기 위한 자비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봉은사신도회(회장 김종빈)는 지난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태국홍수구호기금 10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에게 전달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강남지

역에서 지역교과와 복지를 위해 진력을 다하느라 힘들텐데 십시일반으로 동참해주 정말 고맙다"며 "태국홍수구호를 위한 선발대와 본진 파견에 이어 3번째 구호활동을 위한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인사를 건넸다.

이경자 상임부회장 등 봉은사신도회 임원진과 함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은 봉은사 주지 진화스님은 "지난 9월 신도회가 바자회 개최를 시작으로 마련한 '따뜻한 세상을 위한 행복나눔후원기금'의 첫 번째 사용처로 태국홍수구호기금으로 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불교TV(사장 구본일)는 2000만원을, 청도 운문사(주지 일진스님)는 651만5000원을 태국홍수구호기금으로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한편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스님)는 지난 22일 승가교육진흥기금 2000만원을 승가교육진흥진흥원장 자승스님에게 전달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bulgyo.com



“자비의 김장나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SK텔레콤(대표이사 하성민)과 함께 지난 22일 서울 조계사 앞마당에서 ‘행복나눔 김장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자비마당에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복지재단 상임이사 종선스님, 성공회푸드뱅크 김한승 신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배태진 목사 등 종교지도자와 자원봉사 600여 명이 동참해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만든 김장김치 110톤은 소외계층 가정과 전국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10·27진실규명, 현행법으로 불가능”

‘명예회복방안 세미나’서 제기… “숙제만 남기는 결과” 지적

한국불교 초유의 불교탄압사건인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과 관련, 법제도 보완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위원장 영담스님)는 지난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가해자가 국가로 명시되지 않은 데다 보상조항조차 없는 현행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법률의 문제점을 짚고, 적절히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기사 3면

발제에 나선 조계종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장 대오스님,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 박용규 조계종 총무원 총무차장, 김재원 변호사(17대 국회의원) 등은 “현행법으로는 명확한 진실 규명과 온전한 피해보상이 가능하지 않다”며 “국가가 종교 교단을 상대로 저지른 전대미문의 폭거인 만큼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엄격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명예회복 심의위원장 영담스님 역시 개회사에서 “명예회복 법률에 보상규정이 없고 피해인정 범위가 사망자와 상이자로 제한된 것은 헌법과 불일치하다”며 “법난의 해결이 아니라 숙제만 잔뜩 남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대변인 정만스님이 대독한 격려사에서 “10·27법난은 사회정의를 말미로 국가가 불교계에 씻을 수 없는 모욕과 충격을 준 사건”이라며 “세미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바라며 종단도

문제해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도선사 회주 혜성스님을 비롯해 법난 당시 피해자 스님들도 다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원유철 국

회 국방위원장, 최병국 국회 정각회장 등도 자리를 함께 해 국회 차원의 진실규명과 피해보상을 약속했다. 전체 사회는 이성수 본지 편집국장이 맡았다.

장영섭 기자 tuel@bulgyo.com

社告

성철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학술포럼 ‘한국 근대불교 100년과 퇴옹성철’

2012년은 ‘우리시대의 부처’ 퇴옹성철(1912~1993) 스님의 탄신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이에 20세기 한국 역사 속 인물이자 20세기를 대표하는 한국의 사상

가 성철스님의 삶과 사상을 통해 20세기 한국문화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학술포럼 ‘퇴옹성철의 100년과 한국불교의 100년’을 3년에 걸쳐 진행합니다

2011년 주제 ‘퇴옹성철과 현대 한국불교’ [제4차 포럼 ‘퇴옹성철과 종교의 현실 참여’]

- 일시 : 불기 2555(2011)년 12월 1일(목) 오후 1시~5시
-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 (조계사 경내)
- 주최 : 성철스님문화회, 불교신문사
- 주관 : (재) 대한불교조계종 백련불교문화재단 부설 성철선사상연구원

- 진행 : 발표 40분, 토론 20분
개회사 : 원택스님 /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사회 : 서재영 /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
기조발제 : 갈등의 시기 퇴옹성철의 현실 참여 문제 / 박경준 동국대 교수
발제1 : 간화선의 현실 참여 문제 / 박희승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사무국장
제1토론 : 김호귀 / 동국대 연구교수
발제2 : 돈오돈수론이 가지는 현실 참여적 함의 / 김종인 경희대 비폭력연구소
제2토론 : 석길암 / 금강대 HK교수
전체토론

불교신문사

대한불교조계종 중앙기록관 불교역사자료 모으기 운동

단 한 장의 기록도 불교의 역사입니다

우리 사찰과 큰 스님의 유업에 남아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영구전승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대상 : 《문서기록》(사진, 녹음테이프) <근스님유품 및 박물관> (봉축 관련 사진과 기록) 등...

■ 문의 : 중앙기록관 (02)2011-1712
E-mail : park5149@buddhism.or.kr

대한불교조계종 중앙기록관 불교신문사

지면안내

조계사-북교신문 공동
미안바 행복복지순례 현장 8면

“어머니는 나의 거울 나의 은사”
시인 문태준의 불교인이 이야기 13면

82가지 기도법 집대성한 첫 불교바이블

불교성전

과거의 불교성전과 다르다!
평생을 곁에 두고 가슴에 새기며 함께 해야 할 소중한 말씀만 모았습니다.
.....
가이드북이 쉽게 잘 만들어져 있다면 하시고 그 책을 들고 다니면서 재미있게 부처님 공부를 할 수 있을텐데 마음에 드는 가이드북이 없음을 고심하다가 이렇게 직접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 저자 서문 중

불교성전! 이 한권의 책은 우리 불자들의 참다운 귀의처다. 진정 목숨 바쳐 돌아가 의지할 곳이다. 우보의 생만허공(雨寶益生滿虛空)이 한권의 책은 만 인류가 써도 써도 다함이 없는 보물창고다. - 여천 무비

예불의식·경전·수행법 등 수록 불자필수지침서 『불교성전』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어떤 수행을 해야 할지 망설여지십니까? 절에 가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 모른다면 바로 불교성전을 펼쳐보십시오. 불자예절과 불공의식, 천도재 등의 절에서 자주 쓰이는 모든 의식과 그 의식을 행하는 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10여년 신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수행하며 실용적인 법요집을 고민하던 시내 포교원 황룡사 주지 황산스님이 펴내신 책입니다.

문의 052)211-1949

양장본 | 1103p | 25,000원

달간 내용
제1장 불교예절
제2장 도량식과 종송편
제3장 예불편
제4장 불공편
제5장 천도재편
제6장 법회편
제7장 참회편
제8장 수지독송편
제9장 진언편
제10장 수행편
제11장 발원문
제12장 친불가

이 한권에도 모든 것이 들어 있다.
다승교에 이어져 있어 불교의 정수를 알 수 있다.
절에 갈 때도 여행할 때도 이 한권만 가지고 다니면
기도도 OK, 목기도 OK, 수행도 OK
요즘에서 무뎌져서 불교성전과 함께 하라.